

황정민 '올해의 영화배우' 1위...송강호·공유 뒤이어
황정민이 한국갤럽이 조사한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배우'로 꼽혔다. 전지현(9위)은 여배우로는 유일하게 올해의 10인에 선정됐다. 1위는 '검사외전' '아수라'의 황정민이었다. 2위는 '밀정' 송강호, 3위는 '부산행' 공유, 4위는 '아가씨' 이정우, 5위는 '럭키' 유해진이 차지했다. 이어 이병헌, 이정재, 정우성, 마동석 순이다.



“월등한 완성도 ...실제 공연에 빠져드는 기분”

뉴스인사이드

음악·뮤지컬영화 흥행몰매, 왜?

'레미제라블' '비긴 어게인' 이어 '라라랜드' 대박
'라라랜드' OST 국내차트 점령 등 파급력 최고

7일 개봉한 '라라랜드'는 그 직전까지 이렇다 할 흥행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첫 주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데 이어 2주째에 접어들어 오히려 더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다. 평일인 12일 7만명, 13일에는 더 늘어난 9만명을 동원했다. 특히 같은 날 개봉한 '판도라'를 추격하면서 13일까지 누적 70만명을 동원해 이번 주말 100만 돌파도 무난할 전망이다.

'라라랜드'는 미국 LA를 배경으로 배우와 재즈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영화다. '라라랜드'의 흥행세는 '맘마미아'부터 '레미제라블'의 성공으로 이어진 뮤지컬 영화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

●음악영화, 뮤지컬 영화의 성공...왜?

2008년 '맘마미아'는 457만 명을 불러 모으며 흥행했다. 2012년 '레미제라블' 역시 529만 관객이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극장을 찾았다. 그 뒤를 잇는 '라라랜드'의 성공은 완성도 높은 음악과 이야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힘이다.

뮤지컬 영화 뿐 아니라 음악영화의 성공도 계속됐다. 2014년 '비긴 어게인'(342만), 지난해 '위플래쉬'(158만)가 예상 밖 성공을 거두면서 그 흥행세를 증명할 바 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음악과 이야기를 분리해 개별 감상에 그치는 과거 영화와 달리 최근 성공한 일련의 뮤지컬 영화는 월등한 완성도를 갖추고 관객에게 실제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한다”고 꼽았다.

무엇보다 음악의 힘이 결정적이다. '라라랜드'는 13일 15곡의 OST 수록곡 중 10곡이 엠넷 OST 차트 20위에 진입했다. 수입사 판세네마 관계자는 “SNS를 통해 20~30대에 빠르게 확



영화 '라라랜드'가 또 한 번 뮤지컬 영화의 흥행 공식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도 완성도 높은 음악영화 제작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 | 판세네마

산되면서 입소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국영화는 왜 못 만드나

한국영화는 어떻게. 유독 음악영화만큼은 취약하다. 최근 5년 사이 음악을 주요 소재로 쓴 '더 테너 리리코 스피노', '파파리티'가 있지만 높은 제작비와 스타 출연진에도 각각 5만, 170만 관객을 모았을 뿐이다.

전찬일 평론가는 “음악보다는 스토리와 영상에 집중하는 제작환경에서 당장 음악영화를 제

작하기에는 쉽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흥행이 검증된 장르 위주로 짜인 제작 환경 탓이 크다는 말이다.

음악을 매개로 탄탄한 스토리로 풀어낼 실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도 이유로 꼽힌다. 최근 흥행한 뮤지컬과 음악영화 제작진은 같은 장르를 집요하게 파고든 전문가들. 2006년 '원스'를 내놓은 존 카니 감독은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 등 음악영화에만 집중해 왔다.

'라라랜드'의 다미엔 차렐레 감독도 마찬가지로

고교시절 재즈 드럼을 배운 감독은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위플래쉬'로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다. '라라랜드'를 위해 무려 1900여 곡을 미리 만들기도 했다.

한국영화에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할 제작진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영화 제작자는 “'비긴 어게인' 성공 이후 비슷한 제작 시도가 있었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워 금방 한계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김주혁-이유영 열애 인정

'홍상수 영화' 인연으로 교제...17세 차 화제



이유영(왼쪽)과 김주혁

배우 김주혁(44)과 이유영(27)이 두 달째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두 사람은 13일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고백했다. 김주혁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날 “두 사람이 영화계 선배사에서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교제를 시작한 지 두 달여 정도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무려 17살 차이여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김주혁과 이유영이 사랑으로 인연을 맺게 된 배경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이들은 11월 개봉한 홍 감독의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의 주연 배우로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여름 영화 촬영을 함께 한 두 사람은 그로부터 1년여 만인 올해 9월 스페인에서 열린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극중 이유영을 향한 김주혁의 절절한 구애가 영화의 주된 내용이며, 영화 속 사랑이 실제 사랑으로 이어져 팬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김주혁은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싱글즈' '광식이 동생 광태' '방자전' '비밀은 없다' 등에 출연했다. 이유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으로 2014년 영화 '봄'으로 데뷔한 뒤 각종 영화상 신인상을 휩쓸었고 '간신'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펼쳤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의학 드라마 또 나온다

'폴리클 닥터' 내년 방송 예정...서강준·수영 주연

또 한 편의 의학드라마가 시청자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가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의학드라마가 또 다시 '홍행 불패' 공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내년 방송을 목표로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와 편성을 논의 중인 '폴리클 닥터'가 해당 무대로, 드라마는 8월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아가씨' 다섯을 공동으로 집필한 정하나 작가가 한창 대본을 쓰고 있다. 현재 소녀시대 수영과 연기자 서강준 등을 주인공 자리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다.

'폴리클 닥터'는 병원 의대 실습생을 이르는 말로, 드라마는 의대 본과 3학년생들의 성장기를 그리는 청춘 의학드라마를 표방한다. 그동안 의학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이미 성공한 전문의의 이야기가 아닌 썸이다. 의대생들이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가는 내용을 통해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청춘의 풋풋함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범수, 가족들과 '2016 사랑, 나눔, 바자회' 마련

배우 이범수가 가족들과 연말을 맞아 나눔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범수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건물에서 '2016 사랑, 나눔, 바자회'라는 제목으로 장터를 연다. 이범수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취지로 바자회를 기획하게 됐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이다. 이범수 부부는 매년 연탄 배달과 김장 봉사 등 꾸준하게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범수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음악 랭킹

12월 5일~12월 11일, 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저 별	헤이즈
2	이 바보야	정승환
3	TT	TWICE
4	Decalcomanie	마마무
5	BERMUDA TRIANGLE	지코
6	나비잠	김희철 X 민경훈
7	꽃길	세정
8	불장난	BLACKPINK
9	우주를 줄게	불꽃소년단
10	Stay With Me	찬열, 편지

리브홀릭 출신 이재학 감독-日 배우 리에 내달 결혼

밴드 리브홀릭 출신의 영화 음악감독 이재학(45)과 일본인 연기자 아키바 리에(29)가 새달 결혼한다.

두 사람은 내년 1월13일 미국 하와이에서 하객 없이 양가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둘만의 예식을 올릴 예정이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겸해 양가 부모와 함께 현지에서 여행을 하며 시간을 함께한다.

두 사람은 지난 가을 혼인신고와 마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됐다. 더욱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세까지 생겼다. 이재학은 영화 '신과 함께' 음악 등 진행 중이던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예식을 올리고 싶어 일찌감치 내년 1월로 예

식일을 잡아땀다가 2세를 얻는 축복을 얻었다. 현재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장거리 비행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혼식에 임박해 다시 의사를 찾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때 의사가 만류하면 서울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아는 사이'로 지내다 2015년 봄부터 사랑이 싹 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재학은 "리에에는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준다. 오래 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디밴드 코끼리, 리버풀 등에서 베이스를 맡았던 이재학은 2013년 혼성밴드 리브홀릭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만든 '놀러와' '리브홀릭'

등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6년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시작으로 '국가대표' '미스터 고' 등 약 10편의 영화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미녀는 괴로워'의 '마리아'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국가대표' 삽입곡 '버터플라이'도 스테디셀러로 주목받고 있다.

아키바 리에는 2007년 외국인 여성들이 출연한 KBS 2TV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유명세를 얻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요가 전문가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올해 여름 개봉한 손에잡 주연 '덕혜옹주'에서 일본인 간호사 역을 맡아 연기자 신고를 하기도 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영화 음악감독 이재학과 일본인 연기자 아키바 리에가 내년 1월 웨딩마치를 올린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들은 2세까지 갖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사진제공 | 이재학

홍지영 감독 열정에 마음 연 '기욤 뮈소'

2006년 원작 출간되자마자 영화화 의지
기욤 뮈소 "김윤석 열혈 팬...기대감 크다"

프랑스의 인기 작가 기욤 뮈소는 왜 한국영화만 허락했을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각국에서 영화화 작업 제안을 받은 기욤 뮈소의 대표작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김윤석, 변요한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14일 개봉한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기욤 뮈소는 판권 판매에 누구보다 간직한 작가로 손꼽힌다. 소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가 북미와 유럽 등 세계 30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판권 제안이 쏟아졌지만 모두 거절해왔다.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작가의 마음을 한국영화 제작진이 사로잡은 것은 원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해석력과 '끈기의 전략'이 통한 덕분이다.

'키친' '결혼전야' 등을 연출한 홍지영 감독은 2006년 원작이 출간되자마자 영화화를 바랐다.

기존 타임슬립 소재와 달리 30년 전으로 돌아간 주인공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마주한다는 설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힐링의 메시지도 마음에 끌렸다.

제작진은 프랑스 출판사에 수차례 만남을 요청해 2013년 11월 말 어렵게 기회를 맞았다. 프랑스로 날아간 제작진은 출판사에서 운 좋게 기욤 뮈소를 만났고, 영화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에 작가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도 건넸다.

홍지영 감독은 이후 2년 동안 시나리오를 작업했다. 이야기가 수정, 발전될 때마다 불어로 번역해 작가에 전달할 끝에 2014년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원작 소설의 판권 판매는 그때가 처음이다. 제작사 수필름 관계자는 13일 '원작이 담은 힐링

의 메시지, 그 내용을 한국적인 환경으로 변형했고 완성된 이야기에 작가도 상당히 만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욤 뮈소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작품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특히 영화 '추격자'의 열혈 팬인 작가는 주인공으로 일찌감치 김윤석이 확정되자 이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프랑스 현지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영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알약 10개를 갖게 된 주인공이 평생 가장 후회한 순간을 되돌리기 위해 30년 전으로 돌아가 벌이는 이야기다. 탄탄한 완성도는 물론 연발 분위기와 어울리는 영화로 꼽힌다. 개봉에 앞서 북미와 일본, 중국 등에 판매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달 말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한다.

이해리 기자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홍지영 감독은 판권 판매에 누구보다 간직한 작가로 손꼽힌다. 대표작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가 북미와 유럽 등 세계 30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판권 제안이 쏟아졌지만 모두 거절해왔다.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작가의 마음을 한국영화 제작진이 사로잡은 것은 원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해석력과 '끈기의 전략'이 통한 덕분이다. '키친' '결혼전야' 등을 연출한 홍지영 감독은 2006년 원작이 출간되자마자 영화화를 바랐다.

사진제공 | 수필름